

사순 제5 주일

기도서 P. 269 A해

제1독서(로 마 8, 8-11)
 제2독서(에 제 37, 12-14)
 복 음(요 한 11, 1-45)

숲 정이

발행처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리 국
 인 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5098 ④ 2935

□ 감 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한 봉 섭 신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장 25~26절)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슨 의미일까? 신자도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병이 들거나 늙으면 육적으로 죽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육신의 생사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는 죄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죄에서의 해방을 얻을 자가 찾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의 교훈과 행적을 전하는 복음의 기록을 볼때, 죄로 인하여 삶의 가치와 희망을 송두리채 상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사실들을 발견한다. 사람이 비록 죄로 죽었음지라도 죄 때문에 생의 모든 가치를 다 잃었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를 살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부활과 생명을 얻어 누리는 데는 조건이 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안에 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눌 때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예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가르치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하느님께로 나아가간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분명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 그때 육적 죽음이란 사람의 영혼이 예인 사랑하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게 된다.

예수를 생명의 길로 믿고 따르며, 그의 법을 지키고, 새로운 하느님의 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을 알면, 우리의 생은 새 힘, 새 아름다움을 입게 되고 살아갈 가치를 갖게 된다. 여기 죄에 죽었던 생의 부활이 이룩된 것이다.

현 세에서의 생명과 부활뿐 아니라, 육적 사후에 더 고상한 삶으로, 완성된 삶으로 초대될 것이다. 예수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영생을 약속하셨다.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사순절을 지내는 지금 생각해 보자.

〈장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안 먹으면 돼!

1880년에 아일랜드에서 어느 지주의 마름(舍音…地主의 위임을 받아 小作地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작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그의 이름은 보이콧(Boycott)이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보이콧>이란 말은 「불매동맹(不買同盟)」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 결국은 뜻이 바뀌어, 「어떤 세력이나 국가들에 대하여 제재(制裁)나 보복(報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배척하는 일」을 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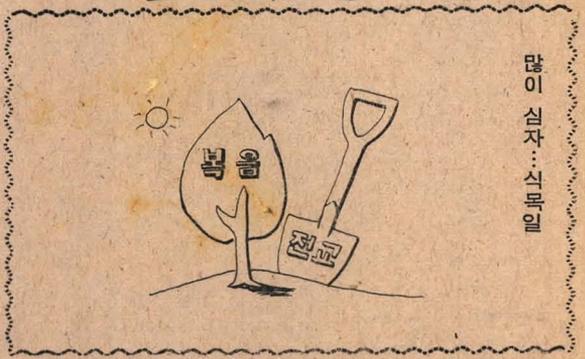
고기값이 조용하게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도 예컨대 말들이 없다. 선거의 열기에 휩쓸려 버렸든지, 아니면 자극시키는 인상 보도를 안해서 인지, 또는 고기를 안 먹어도 살아 가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인지 모르겠다. 사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물가 인상이 아니라면, 안 사면(不買) 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지경이 아니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설탕과 비누, 페인트의 거래가 정부의 고시가격을 밑도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는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경제의 정체 현상이요, 또 하나는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언젠가처럼 물건값이 오른다고 법책을 펴며 「사제기」보다는 「절약」으로 대처하는 현명한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져 흐뭇하기 그지없다.

근로자들이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쟁의 수단으로 「보이콧(불매동맹)」을 한다. 가지지 못한 자가 조용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질력 과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보이콧이다. 그런데도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는, 선택 하라고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보이콧)」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려 든다.

지금은 사순절, 선과 악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때이다.

숲 정이 산책



교회상식 ⑤

제 의 (2)

4. 띠 : 장백의가 풀리거나 벌어지지 않기 위해 허리에 묶는 끈인데 이 띠를 졸라매는 것은 작업을 시작할 때나 전쟁이나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 공작이다. 이는 사제가 마귀를 대항할 필요성과 극기의 중요성을 작성케 한다.

“주여 조찰함의 띠로 나를 띠어 주시고 내 안에 사육을 없이하시 절제와 정덕의 덕이 있게 하소서” 하면서 띠다.

5. 영대 :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천이다. 색은 제의색과 같다.

영대는 사제의 의무적 본직을 수행할 때 사용하며, 사제적 직무를 표시한다. 즉 미사, 성사, 장례식 등등.....

부제는 왼편 어깨에서 바른 팔 밑으로 매며, 신부는 가슴 앞으로 내려 매다. 이를 땀 때 친구하며 “주여 원죄의 타락으로 앓은 불사불멸의 영대를 내게 도로 주사주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하오나 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한다.

6. 제의 : 마지막으로 입는 큰 옷으로 장백의 위에 거의 덮이며 앞뒤가 늘어지게 된 옷으로 본래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의투이다. 그러나 이것은 십계명의 짐을 지는 것을 표시한다. 이 제의를 “작은 집”이란 뜻으로 애덕을 표시하며, 십자가가 있음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제대에 올라 제사를 거행한다는 뜻이며 앞에 십자가는 사제 자신의 십자가, 뒤의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를 지는 뜻이다.

사제가 제의를 입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명에는 달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신지라,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은총을 얻도록 이것을 잘 지게 하소서”

7. 갑빠 : 성사집행, 행렬, 성체장복. 장례 같은 때 입는다.

8. 종백의 : 직(복서, 시종)을 수여받은 신학생 또는 사제가 미사와 다른 예식때 입는 무릎까지 긴 흰옷이다.

<제의 색>

1. 흰색 : 영광, 결백, 기쁨의 상징이며 주님과 성모 천사 및 치명 아니한 성인들의 축일에 사용한다.

2. 붉은색 : 불과 사랑을 상징하며 성신, 순교자 축일과 성지주일에 사용한다.

3. 녹색 : 영원한 삶을 바라는 그리스도교적 희망과 회개의 상징이며 연중 주일에 사용한다.

4. 자색 : 보속과 통회와 겸손을 상징하며 대림시기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 전야까지 사용한다.

5. 검은색 : 죽음을 뜻하며 주님께서 죽으신 성 금요일과 위령미사, 장례미사때 사용한다.

6. 잠미색 : 기쁨과 휴식을 상징하며 사순 제 4주일과 대림 제 3주일에 사용한다. (김기수 신부)

자신있게 외칠 수 있다

—성당 입구 포장공사를 마치고—

김 병 운

빈 집 같다는 인상을 씻기 위해 시작한 공사다. 모퉁한 금액으로 애써 들여놓은 돌, 자갈, 모래 등이 여기 저기 쌓여있고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였다. 가뜩이나 비싼 인건비를 절감키 위해 신자들의 노력봉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본당신부로서는 좀처럼 시작의 나팔을 울리기가 두려웠다.

기본적인 신앙생활(미사참례, 조과, 반과)만을 말없이 이행하는 우리 신자들, 겉게 탄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살의 과묵한 모습, 웬만한 자극에 좀처럼 반응의 작용이 엿보이지 않는 성격, 지나치게 무관심하다고만 여겼기에 당서리고만 있었다. ...이윽고 「시작은 반이다」라는 격언테로 종을 울렸다.

마음을 조아리며 대문을 주시하고 있었던 월요일 아침, 땀을 든 분이 보인다. 잠시후에 삼을 든 분이, 곡땀을 든 분이, 대야를 수대를 든 아주머니들이... 스물, 실흔분 자꾸 모여든다. 잔뜩 찌푸린 날씨에다 간간히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파고, 썰내고, 깔고 다듬고 하는 그 광경이 그토록 호모할 수가 없었다.

금요일 오후 공소에서 돌아와 말끔히 단장된 진입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었다. 그동안 한톨의 자갈도, 한줌의 모래도 아껴려는 정성이며 일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따뜻한 지원(침실, 셋밥 등을 서로 다루어 제공)등이 아름답기만 하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의 우리 농촌 신자들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라고 말이다.

금년 이분들에게 풍성한 결실있기를 두손 모아 빈다. <신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숲정이 안내

애써 쓰신 글들을 숲정이에 투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원고지(200자) 3~4매를 넘는 것은 지면상 실기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고하실 때는 가능한 교회 전례와 시기, 동향 등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는 단순한 문예발표지 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유고를 바랍니다.

<숲정이 편집실>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저)

전주 남문열(대지여과일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신자 여러분에게는 특별 봉사로 모시겠습니다

미 경 의 상 실

전주시 경원동 3가 90~7

☎ ④ 0156(동부교회 옆)

주. 경양수(방지저) 이요안나

백곰표심크 남원대리점

<군정 민원실 앞>

물버림 생크대, 조리대, 가스대, 벽찬장, Rinnai, Korinai가스렌지 에어릭스, 병글이책·결상(어린 이용)

(압력솥, 가스솥, 출장 상담)

※ 교우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 이수철(스베파노) ☎ 5398

1인 1도(一人一導) 선교대책 이상 없나?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전래 200주년을 앞두고 금년 특별히 「이웃 전교」와 교회선양에 온 정력을 쏟고 있다. 그해 각 교구는 물론 교구내 제 본당들도 앞다투어 예비자 인도와 교리지도에 새로운 방법과 묘안을 창안, 여기 저기 공전(空前)의 대 히트를 속출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주현동, 무주, 함열, 남원 등이 꾸준히 「1인 이상 전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혁혁한 실적을 올리는가 하면, 벽촌 고산 같은데선 이미 100여명이 넘는 예비자들로 가득 북민다는 소식들이다. 아직 공식 집계된 바는 없으나 기타 본당들도 모두 이에 못잖은 성황을 이루리라 싶어 금년 부활절은 그 어느때 보다도 풍성한 구원의 잔치가 될 기대에 지레 흐뭇해진다.

아무튼, 전교는 그리스도의 지상(至上) 명령이요, 우리들의 사명, 기필 1인 1도의 본분을 다해 사랑의 교회임을 행동으로 함께 증거해 보이자.

장수본당 회합실 신축에 부심

블과 3년전에 장제로부터 분리, 신설된 산간 작으마한 본당 장수 신자들이 요즘 10여평 남짓한 회의실 하나를 마련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있는 사람들에게야 차고(車庫) 정도밖에 안될 건물이지만 가난한 산골 교우들에게 참으로 뼈근한 역사(役事)다. 본당 신부님(이중원)이 직접 사비를 쏟으며 가냘픈 흙님들의 성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푼 두푼 티끌모아 우정과 선교의 요람 하나 만들고파서-

70명의 성당, 10명 사제관, 그리고 허술한 식당 한칸이 전부인 이 오지(奧地)의 새 본당에 사랑의 손길을 펴주실 고마운 독지가는 없으실런지? 자력(自力)으로 이뤄보겠다는 고운 뜻이지만 오늘의 산간 빈촌엔 그도 안타까운 출혈 될까 싶어 지켜보며 속삭여 본다. 형제들이 살아 있음을 그려보면서.....

남원 「일일 탁아소」 운영 봉사

성스런 주일미사에 아가들의 합창은 귀엽긴 하지만 전례집전에 적잖은 분심꺼리다. 좋은 수가 없을까?

어머니들을 돕고 경진한 참미를 한껏 올릴 수 있도록 이에 남원 본당이 일일탁아소 운영을 착안, 여성 직장 팀(천사의 모임)의 봉사로 훌륭한 성과를 올리며 교우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주일마다 회원 34명이 3교대로 유치원을 이용 20여명의 아기들을 돌본다. 아기들 일로 고심하는 본당, 부모님들 저 천사팀의 보람된 활동을 본받으면 어떨런지..... 수고에 감사드린다.

故 이철연(프란치스코) 신부님 1주기

주의 평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줌이 한 생의 삶이었다. 80여년의 긴 세월을 양들 위해 남김없이 주시고 하느님 품에 안기신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주기(4월 5일)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기일이 주일인 관계로 부득이 월요일(6일) 오전 10시에 주교님 을 모시고 교구내 신부님들의 공동 집전으로 중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 참례하여 효성어린 추모(追慕)의 정을 나누며 함께 기도를 올리자.

요심이(400) 김병오



사원 모집 공고

당사는 수출품 섬유업체로 금번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미싱기능공 및 보조공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기능공: 〇〇명

보조공: 〇〇명

기간: 81년4월1일부터수시접수

연령: 18세 이상

※ 미싱공은 특별우대

동양섬유 공업사

대표: 박경환(마재오)

전주시 금암동 475번지

전주공장 전화 ④3843

문교부가 인정한 유일(唯一)한 보급기관

회 원 모 집

신속·정확히 읽을

속도법(速讀法)!

초·중·고·대·일반

성경속독반 그룹지도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

연구회 전북지부

성모병원 3층 ⑥ 4567

조 윤 희(베드로)

새생활 속독법 전복지부

300P 5분~10분 이해 가능

대상: 학생, 종교인, 사회인, 기타

성경반 환영

※ 무료 공개강좌 토요일 오후3시

위치: 오거리 이의과 앞

☎ ②537 배남식(토마)

대한속독협의회

※ 연구위원 직접강의

광고 신청은 월요일까지: ③5098

새생활 속독법

300P 책: 5~10분이면 이해 가능

대상: 학생, 종교인, 기타

무료공개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문의전화 ③ 0909

대한속독협의회 연구위원 강의

새생활 속독교육 연구원

배 토 마

위치: 이리역 옆(원대쪽 20m)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식사항

1. 1차 분당 전례위원 교육...4월 8일<수> 오후 2시 센터, 각 분당 2명
2. 하루 전국 마리아빨리...일시-4월 26일 오전 9시45분~오후 4시30분
장소-해성 중·고 체육관, 대상-고등학생 이상 일반일
3. 제 4 지구 사순절, 40일간 기도 마지막 미사...주교님 집전,
일시-4월 11일 오후 3시, 장소-치명자산
4. PAX ROMANA DAY: 4월 11일<토> 3시, 회관

(중앙)

전화 36513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인홍
보좌 신부 박인우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월례회: 4월 9일 오후 7시
구역장, 반장, 고문, 각 신심단체회장·부회장
 2. 인성회 총회: 4월 10일 오후 7시, 상임위원, 특별위원, 위촉위원 인성회에 뜻있는 분 참석 바람
 3. 프란치스코회: 오후 2시 강당
 4. 노인 품판공4월7일 오전10시, 병자: 7일 오전 10시
 5. 고 이철연(프란치스코) 신부님 1주기 미사 6일(월) 오전 10시 주교님 집전, 중앙성당
 6. 4월 10일 금요일: 회개와 보속을 위한 단식제
- 지난주 봉헌금: 520,492원

(노송동)

전화 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16차 성령세미나: 내일부터~11일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9시30분까지, 직장인들의 많은 참여를바람
 2. 부활 판공성사 일정: 13일(월)~18일(토)까지
 3. 지난주의 예비자 봉헌: 4명, 금년도 제 1차 예비자 모집은 끝났습니다. 제 2차 예비자 봉헌은 7월달
 4. 사순절 저금통에 정성을 모읍시다
 5. 성당화단 조경사업에 협조하신 분: 노인석 회장님께서 흙 20차 회사, 유영철씨 정원수 40그루 기증, 정년·학생 봉사
 6. 수녀님들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7.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사도행전 전체
 8.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260,525원

(덕진)

전화 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상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판공성사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합시다
 2. 사도회 월례회: 미사후 2층 회의실
 3. 주일학교 어린이 치명산 참배: 오늘 오후 2시~5시까지, 부모님들 함께 동행해 주세요
 4. 부활 성가연습: 어머니 토요일 오전 11시
젊은이 일요일 저녁 7시
 5. 성지순례: 4월 8일 오전 6시30분, 점심·미사도구 준비, 26명 신청순 마감, 참가비 5천원
 6. 반석회 모임: 오늘 미사후, 저녁 7시
 7. 신임 진북회장 선출: 이성환(바로로)
 8. 봉헌금 카드를 확인하시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47,940원 공소: 105,000원

(복자)

전화 5238번

주임 신부 김종환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판공성사 일시: 6일-다가동·중앙동, 7일-태평동·고사동, 8일-진북동·화산동, 9일-완산동, 11일-기타 학생·직장인,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 판공성사 촬영-일상기도문
 2. 예비자 특별교리: 11일까지 매일 저녁미사 후
 3. 성가연습: 어머니 성가대-9일~14일 오전 10~11시
 4. 분당 사순절 피정: 13일(월) 저녁 7시30분~10시
14일 저녁 7시30분~10시, 15일 오전 9시~오후 5시
대상: 전신자 특히 사도회 L.M, 부인회, 성우회, 애병회원 꼭 참석 바랍니다
 5.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김화영, 이정호)
 6. 미사봉헌: 4월 27일~5월 16일까지 미사봉헌 하실분은 4월 26일까지 신청 바람
교구 신부님들 피정(서울에서)
- 지난주 봉헌금: 569,290원

(서화동)

전화 2276번

주임 신부 김병택
사도 회장 한철수

1. 공소판공: 광곡리(8일), 마음리(9일) 오전 가정방문
 2.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반장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구리아 월례회: 오후 2시(다음주)
 5. 성심부녀회: 10일(금) 오후 2시
 6. 분당 판공성사 일정: 13일(1·2·3반), 14일(4·5·6), 15일(7·8·9반), 16일(10·11·12), 17일(13반 기타반) 성사시간-오후 2시에서 6시까지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조동근 ② 김나섭
신자들의 기도-한형수
- 지난주 봉헌금: 203,300원 교무금: 188,600원

(효정이)

전화 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평신도 강론: 김수경 교장선생님께서 수고하십니다
3. 누굴다 부녀월례회: 4월 4일
주일학교 후원회-4월 7일
4. 미납된 교무금 완납하시고 판공성사에 임해주세요
5. 이규례씨께서 진북2동 2반장 수고해 주십니다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강 삼·박대규, 기도-김경주
7.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 아침미사 6시30분-6시로, 오후미사 7시-7시30분으로, 평일 아침미사 6시30분-6시, 평일 오후미사 7시-7시30분으로 각각 변경합니다

(전동)

전화 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종두
사도 회장 이준두

1. 구역장 반장 피정: 4월 3일 오전 10시~오후 5시
 2. 부활영세자 특별교리: 3월 31~4월 10일(저녁미사후)
 3. 제1단계 일교예식: 4월 4일 저녁미사 후
 4. 판공성사 일정: 시간 오후 2~7시
4월4일(토)-초·중·고생 오후 2~7시, 7일(화)-전동1·2·3구, 경원·다가·중앙동, 8일(수)-동교동1·2·3·4구, 서교동1·2·3구, 9일(목)-동완산동1·2·3·4구, 서완산동, 10일(금)-풍남동1·2·3·4구, 남노중동1·2구, 11일(토)-기타동
 5. 구역 회합일정
동교동2구-4월 7일 오전 10시(김신덕씨 맥)
동교동4구-4월 8일 오후 2시(박철환씨 맥) ⑤ 5972
전동1구-4월 9일 오후 3시(조일주씨 맥) ⑤ 5941
서교동1구-4월 9일 오후 8시(이영조씨 맥) ⑤ 0455
서교동2구-4월 10일 오후 3시(윤봉덕씨 맥) ⑤ 9949
 6. 유아세례: 9시 미사 후
 7. 사도회: 공식미사 후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규, 독서-① 범덕배 ② 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이영자, 독서-① 최병남 ② 안득수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영철 ② 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465,425원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L.M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1시 30분 덕진성당
 2. 어린이미사와 교리변경: 4월 11일-12일 오전 9시로
 3. 분당판공은 12일(주일)에 부주교님 집전
신사표는 11일까지 가져가세요 ※ 당일엔 못받으신 분은 18일 저녁미사때 옵니다
 5. 수녀님들 신축현금: 박명래(1십만원), 안복태(1만원)
- 지난주 봉헌금: 126,770원 어린이현금: 1,620원
교무금: 270,000원